

신문매체에 나타난 한국 남성복 변천에 관한 연구 -1988년부터 1997년까지-

趙亮來·羅秀任*

상명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의상디자인학과 부교수*

A Study on Transition of Men's Wear on Newspaper Media

Yang-Rae Cho and Soo-Im Rha*

Graduates School, Dept. of Textiles and Clothing of Home Economics,
Sangmyung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Sangmyung University*

目次

Abstract	1. 스타일
I. 서론	2. 색상·무늬·소재
II. 1988년 이후 한국의 사회변동	3. 착장방식
III. 1988년 이후 신문매체에 나타난 남성복 분석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is research, as a study of the documentary records, examined the process of men's wear development year by year, looking into the newspapers which show objectively social phenomena in those days. The outcomes therefrom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important factors of dress and ornaments' modeling i. e. style, color, pattern, material, ornamentation method. And then, the process of men's wear transition was analyzed based on the aforesaid examination with its classification.

The above analyses revealed that a transition of a dress and ornaments closely correlates with a social and cultural change and also meant that the dress and ornaments symbolizes the social phenomena in those days. Thanks to the holding of Seoul Olympic Games in 1988, Korean society had tremendously grown with rapid changes in its politics, economy and culture. Also, men's wear type became innovative, breaking from the existing orthodox one due to the transition of men's viewpoints on value and their lives' style.

I. 서론

복식은 인간이 만들어 낸 문화유산으로써 사회·문화적 배경을 보여주는 거울의 역할을 해왔다. 복식의 변천은 독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그 사회의 여러 요인의 작용에 의해 복합적으로 전개되므로 복식 현상을 연구함에 있어서 한 시대의 사회와 문화의 변동을 살펴보는 것은 필수적이다.

특히 우리나라 현대의 복식은 급격한 사회변동에 따라 많은 변화를 하였다.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 이후 한국 사회는 윤택한 경제 생활로 물자는 더욱 풍부해졌고 소비자들은 그 만큼 선택의 범위가 넓어져 물건 중심의 단순소비에서 인간 중심의 소비구조로 변화하였다. 또한 현대의 패션은 더이상 여성들의 전유물이 아니며 남성들에게도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남성복은 사회적 신분과 직업적인 성공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지침이 되었으며 인생의 목표를 지향해 갈 때 목표 달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되었다.¹⁾

과거와 달리 남성들 스스로가 전형적이고 한정된 복식 형태와 색상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유행을 창조하고 있으며 젊은 남성들은 수입의 많은 부분을 의복비로 지출하고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에 남성복 산업이 다양하게 발달함에 이것을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발전시키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체계화되고 정립된 관련 정보의 수집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사회가 서울 올림픽의 개최로 인하여 문화접촉이 활발해지고 경제적 풍요 속에 국제화되기 시작한 1988년부터 경제적 건축의 IMF 시대 전인 1997년까지의 한국 현대 남성복의 변천을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른 변화 과정과 그 요인으로 나눠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매스미디어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신문에 기재된 남성복 관련 기사를 총체적으로 선택·수집하여 내용분석하여 남성복의 연도

별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그 내용을 복식 조형의 요소인 스타일, 색상·무늬·소재, 착장방식 등으로 분류하여 살펴 보았다. 이는 신문이 사회와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산물로써 사회의 변화를 거울처럼 반영하기 때문이다. 또한 신속하고 빠르게 변화를 보도하는 활자매체로서 시사성과 연속성을 가져 복식의 변화를 분석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남성의 몇 등 신문 3종류에 나타난 남성복 관련 기사를 사회·문화현상과 관련시켜 조사한 바 이는 동아(1920년 4월 1일 창간)·조선일보(1920년 3월 5일 창간)는 국내 일간지 중에서 가장 오래된 신문으로 역사적 신뢰성과 공신력이 있으며 또 신문 판매 부수가 많아 대중성이 크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선정하였고 남성의 몇은 남성복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선정하였다.

II. 1988년 이후 한국의 사회변동

모든 사회는 끊임없이 변동의 과정을 가진다. 변동되지 않는 사회란 존재할 수 없으며 속도와 방향만 다를 뿐 변동은 지속적이고 불가항력적이며 정상적으로 우리는 현재 급속히 변동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변동이란 사회생활의 다양한 수준에서 나타나는 유의미한 새로운 변화를 지칭하는 것이며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문화유산 중의 하나인 복식이 그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복식변동 요인을 보는 입장도 다양한데 M. Horn & L. M. Gurel²⁾은 지배적인 관념, 경제적 조건, 국제관계, 연애와 예술, 개방적 계급체계, 여가, 스포츠, 교육, 문화접촉, 젊음, 사회적 동요, 여성의 지위, 기술 등을 복식 변동의 요인으로 보았다. 그리고 Ryan은 이념들, 일반적인 문화적 차이, 여성에 대한 태도, 일시적인 사건, 활동의 유형, 기술의 발달, 관습과 풍습 등의 요인에 의해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였다.

한편 이호정³⁾은 복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1) E. B. Hurlock, *Development Psychology* (New York: McGraw Hill Book Company Inc, 1975), p.389.

2) Marilyn J. Horn & Lois M. Gurel, *The Second Skin*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1981),

이화연 외(역), 『제2의 피부』(서울: 까치, 1995), pp.128~149.

3) 이호정, 『의류상품학개론』(서울: 교학연구사, 1995), p.17.

는 사회, 문화, 경제 환경, 정보 환경, 유통구조, 라이프 스타일, 인구동태, 기술혁신 등을 들고 있는데 그중 사회의 변화는 몇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고도의 산업사회화 이외에 인구 통계학적 추세, 새로운 가치관의 출현, 중요한 역사적 사건 및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 변화 등에 기인되는 사회변화가 복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들 중 고도의 산업화 및 성역할의 변화와 같은 것들은 사회변화의 직접적인 현상이며 인구 통계학적 추세나 새로운 가치관과 같은 요인들은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변화로 생각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각 변화들은 새로운 복식의 발생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친다.

이러한 측면에서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나타난 우리 나라의 사회적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의 한국 사회는 인구 4643만명(1998)⁴⁾에 이르고 있으며 해마다 약 56만 7천명의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다. 인구밀도는 1km² 당 463명으로 조밀해졌으며 인구수가 가장 많은 계층은 25~29세로 총인구의 9.7%⁵⁾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국민 평균 수명은 73.5세(1995)로 10년전보다 4.5세가 높아져 고령화되어 가고 있으며 노동가능인구(15세 이상)도 크게 늘어나 1986년에 70.8%이던 것이 1997년에는 77.6%⁶⁾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는 경제발전에서 따른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여성인구의 취업, 사회적 가치 체계나 행동 규범의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눈부신 경제 성장은 한국 사회가 국제적인 인정을 받아 OECD(경제협력기구)⁷⁾에 까지 가입하게 되었다.

GDP(국내총생산)는 수출과 설비투자의 호조에 힘입어 1987년 112조 1300억원 이던 것이 1997년에는 389조 9790억원으로 증가했으며 GNP(국민총생산)도 1987년에 109억 7270억원(1,334억\$)에서 1997년에는 416조 170억원(4,804억\$)으로 늘어나 1인당 GNP는 9,511\$에 이르고 있고⁸⁾ 수출입면에서도 타국과 교역을 한 무역 총액은 2,602억\$로 이는 동년 GDP의 절반이 넘는 57%⁹⁾나 되어 우리 생활이 외국과 얼마나 일정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정보화된 사회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이동전화의 가입을 보면 1986년 7,090명에서 1996년 180,989명¹⁰⁾으로 늘었고 PC는 4,266,505명이 보유하고 있으며 사용인구는 7,214,071명¹¹⁾으로 평소 1주일에 6시간 정도¹²⁾ 사용하며 1,090,247명이 PC 통신을 사용하고 인터넷과 동시에 사용하는 사람도 392,333명이나 되어 인터넷은 47,474명¹³⁾이 사용하고 있다. 또한 위성방송 및 케이블 TV의 개통으로 전문채널의 대중매체가 보급되어 각종 정보를 창출함으로써 세계화, 정보화 세대로의 변화가 일고 있는데 그 가입자도 1995년에 555,683명에서 1997년에는 2,161,053명으로 인구 100명당 1.2명에서 4.7명¹⁴⁾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일보다는 가족이 중요해 일상생활이나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가족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일에서도 즐거움이나 능력 발휘를 우선시 하며 좋은 상품이면 국적과는 상관없다¹⁵⁾는 신소비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72.1%가 일한 만큼의 여유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25.4%만이 일을 우선시하고 있고¹⁶⁾ 생

4) 통계청, 한국의 주요경제지표, 1998, p.5.

5) 통계청, 도표로 보는 통계, 1997, p.18.

6) 통계청, 위의 책, p.28.

7) 1996년 12월 12일 가입. 29번째 회원국임.

8) 통계청, 한국의 주요 경제지표, 앞의 책, pp.212~213.

9) 통계청, 생활속의 통계, 1996, p.16.

10)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의소비생활지표, 1997, p.138.

11)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정보와 통신 안전부문, 1997, p.168.

12) 통계청, 위의 책, p.230.

13) 통계청, 위의 책, p.244.

14)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7, p.340.

15) 조선일보, 1996. 11. 11.

16) 중앙일보, 1996. 10. 15.

활의 여유를 즐기기 위해 자녀도 미웠다는 부부도 등장하고 있다.¹⁷⁾

한국 사회의 소비자층은 10년 사이에 4.2배나 늘어 교통, 외식, 교양, 오락비가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1986년 33만 1천만원에서 1996년에는 1백 39만 5천만원¹⁸⁾으로 즉석요리·간이식품을 66.5%¹⁹⁾가 먹어 보았고 월평균 외식 횟수는 49.9%가 주 1~2회로 1993년에 안한다가 42.5%이던 것이 1997년에는 30.3%²⁰⁾로 줄어들었다. 음료 및 담배의 수입도 1990년에 1억 8800만\$이던 것이 1996년에는 6억 6500만\$²¹⁾로 증가했다. 정부의 개방화 정책과 해외여행의 자유화 정책 이후 한국 사회는 고급소비가 커져 사치와 낭비를 일삼는 풍토 속에 1997년 수출액은 1361억 6400만\$이고 수입액은 1446억 1600만\$로 경상수지는 -86억 1800만\$²²⁾이다. 해외여행은 크게 늘어 내국인이 1987년에 99만 2천명이던 것이 1996년에는 464만 9천명이 해외로 나갔으며 이에 여행 수지 적자만도 12억\$ 이상이었다.²³⁾

또한 시대의 변화는 개인의 성역할 특성에도 큰 영향을 주어 정진경(1990)²⁴⁾의 한국형 성역할 검사에 의한 분류를 보면 많은 남성들이 양성적인 면을 나타냈다. 이것은 한국 남성들의 보수성이 완화되고 획일적인 가치관을 버려 개성을 인정하는 다양한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건강에 관한 관심도 높아져 건강관리를 한다는 사람이 1989년에 29.7%에서 1995년에는 57.3%²⁵⁾로 커다란 증가 추세에 있으며 공기 좋은 곳을 찾는 탈 서울 현상이 두드러져 서울에서 경자 지역으로 1996년 한해 동안 52만 1천명이 이동하여 신도시인 고양시나 성남시 등으로 이주하였다.²⁶⁾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88년 서울 올림픽은 우리나라에 많은 변화를 초래한 역사적 사건

으로 나타났다.

Ⅲ. 1988년 이후 신문매체에 나타난 남성복 분석

1988년 이후의 신문 매체에 나타난 한국 남성복의 변화 내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및 남성의 멋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그에 나타난 남성복 기사를 수집·분석하였는데 그 기사 수는 다음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타났다.

1988년부터 1989년까지의 남성복 관련 기사는 동아일보에서만 다루고 있었으며 1990년에는 동아일보와 남성의 멋에서만 기사 내용을 살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1988년부터 1997년까지 10

<표 1> 연도별 각 신문 기사 수

신문명 연도	동아일보	조선일보	남성의 멋	합 계
1988	4	·	·	4
1989	4	·	·	4
1990	4	·	2	6
1991	5	2	3	13
1992	11	3	2	18
1993	15	2	4	28
1994	13	4	4	21
1995	10	3	6	31
1996	10	8	6	20
1997	10	5	1	16
합계	86	47	28	161

17) 한국일보, 1997. 3. 27.

18)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앞의 책, p.147.

19)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의소비생활지표, 앞의 책, p.160.

20) 한국소비자보호원, 위의 책, p.161.

21) 통계청, 지표로 보는 통계, 앞의 책, p.157.

22) 통계청, 한국주요경제지표, 앞의 책, p.233.

23) 통계청, 지표로 보는 통계, 앞의 책, p.30.

24) 정진경, "한국성역할검사," 한국심리학회지, 5호(1990), pp.82~92.

25) 통계청, 생활속의 통계, 앞의 책, p.176

26) 통계청, 인구이동통계연보, 1997, p.24.

년간의 표집된 총 기사 수는 161건이었고 이 중 동아일보가 86건으로 가장 많은 남성복 기사를 다루고 있었다.

한편 '80년대 후반에는 남성복 관련 신문 기사 내용이 적었으나 1991년부터는 기사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5년에 신문 기사 수가 가장 많았고 그 이후에 서서히 감소하였다.

다음은 수집된 남성복 관련 기사 내용을 복식 조형의 요소인 스타일, 색상·무늬·소재, 착장 방식으로 분류하여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다.

1. 스타일

서울 올림픽 이후 경제발전애 의한 소득향상은 선진국형 소비패턴과 노동시간의 단축으로 인한 여가시간 활용 욕구 및 젊은층의 유행선도력 증가, 대중전달매체의 발달, 남성용 신사브랜드의 다양화, 남성 소비자를 위한 잡지 및 남성화장품을 위한 광고 증가 등을 가져왔고 이에 대한 영향으로 남성들의 가치관의 변화를 수반하면서 새로운 복식 행동 및 소비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표 2〉를 보면 변화가 없어 보이는 남성복도 꾸준히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88년에는 편안한 실루엣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이는 1990년까지 계속 이어진다. 그리고 상의는 어깨를 강조한 스타일로 1991년에도 이 같은 역삼각형의 실루엣이 보여진다. 1992년부터는 어깨선이 부드러워져 1993년에는 어깨선을 덜 강조한 부드러운 여성적인 면이 나타난다. 이는 1995년 까지 계속되어 여성스러운 느낌의 화려하고 부드러운 스타일들이 보여진다. 또 1996년에는 좁은 어깨에 꼭 맞고 잘록해진 허리선의 날씬하고 가는 실루엣으로 신체 곡선미를 그대로 드러내 주고 있어 더욱 여성적인 인상의 부드러운 실루엣을 보여주며 1997년에는 여성적인 섬세한 실루엣에서 다소 탈피하여 남성다움을 강조한 넓은 어깨와 품을 가진 스타일들이 등장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남성들 스스로가 자신의 복식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이전 시기보다 더욱 유행의 변화가 가속화되었고 다양한 모드가 공존하였

다. 따라서 남성복 시장도 활기를 띄게 되었는데 그 이유로 동아일보 1988년 11월 24일자는 무엇보다도 남성들의 의식과 생활양식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고 적고 있다. 이제는 남성들이 직접 옷고르기를 즐길 정도로 패션 감각이 예민해졌으며 여기에 자유직업인의 증가, 개성 있는 생활양식과 옷차림을 즐기는 의식변화와 교복자율화로 젊은 세대들의 감각이 변화된 것 등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사회학자들은 가족부양과 사회적 성공에만 매달리던 남성들이 이제 자기 자신에게 눈길을 돌리면서 수월한 삶, 신나는 시간에 투자하는 남성해방 움직임의 하나로 분석하였다.²⁷⁾

남성복에 있어서 패션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은연중에 금기시 되었던 '60년대와 비교해 보면 이러한 현상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앞으로는 더욱 소득이 증대하고 라이프스타일이 변화하면서 필요충분으로 그 만큼 남성복은 변하고 다양화 될 것이라 여겨진다.

2. 색상·무늬·소재

88 서울 올림픽의 개최는 한국의 국제화를 가속화 시키는데 충분하였다. 이로써 국제 무대의 패션 경향은 매스미디어의 발달과 함께 빠른 속도로 한국 사회에 진출하였다.

세계는 탈 냉전화로 인하여 평화주의, 자연주의의 무드 속에서 하나뿐인 지구의 자연을 지키기 위한 본능적인 방어의 욕구로 에콜로지에 대한 사고가 팽배하였고 이에 에콜로지 모티브와 자연적 색감들이 크게 유행하였다. 〈표 3〉을 보면 자연스런 중간톤의 시원한 중간색 계열의 파스텔 색조나 이국적인 색상 등 부드럽고 밝은 색상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브라운, 블루, 그린 계열의 자연색에 바탕을 둔 색상들도 쓰이고 있어 극단적인 색조는 피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남성복에서의 색상은 1980년대에는 청색, 갈색, 회색의 비율이 전체의 82%에 달했다는 권혜옥·변유선²⁸⁾의 연구 결과보다 전반적으로 화려해지고 밝아졌다. 동아일보 1992년 4월 4일자

27) 김순덕, 동아일보, "남성복 판매 급증, 경쟁 뜨겁다," 1988. 11. 24.

28) 권혜옥, 변유선, "우리나라 남성복 광고의 변화와 남성복 경쟁 계킷의 디자인 요소 변화에 관한 연구," 복식, 32호, 1997.

<표 2> 신문에 나타난 남성복 스타일의 연도별 변화

	스 타 일	요 인
1988	· 헐렁한 듯 편안히 몸을 감싸는 실루엣.	가계 소득의 향상,
1989	-	선진국형 소비 패턴,
1990	· 착용감이 편안한 실루엣. · 바지통이 넓어짐. · 상의-어깨가 넓어지고 히프라인이 좁아지는 역삼각형을 이룸.	대중매체의 발달, 정보화의 진전, 라이프 스타일 변화,
1991	· 다양한 유형-이탈리아 · 미국 · 영국 · 프랑스풍 등장. · 더블-어깨 심을 넉넉히 넣어 전체적으로 여유 있는 실루엣으로 역삼각형을 이룸. · 어깨가 꼭 맞는 싱글브레스트, 2~3개 버튼. · 바지-앞주름 2~3개, 통이 좁고 밑단을 접어 올린 일자형.	여가 시간활용, 스포츠의 확산, 동구권과의 교류, 개방화, 민주화, 해외여행의 자율화.
1992	· 헐렁하고 편안한 자연스러운 스타일. · 바지 아랫단을 접음. · 라인은 약간 길고 좁으며 허리선 강조. · 어깨선 좁고 부드러움. · 싱글브레스트 3버튼룩 유행.	
1993	· 어깨선을 덜 강조한 풍성한 느낌의 여성적인 부드러움 강조. · 싱글베스트 3버튼룩. · A라인 스타일.	
1994	· 어깨선이 둥근 느낌 강조, 부드러워짐. · 싱글-V존이 높은 3버튼룩. · 더블-6버튼룩. · 편안하고 흐르는 듯한 부드러운 실루엣. · 스포티하고 캐주얼해짐. · 가디건 스타일-깃 없는 정장.	
1995	· 어깨 등의 각진 부분이 부드러워짐. · 통이 좁은 바지. · 평퍼짐하고 헐렁한 실루엣. · 고전풍의 조끼. · 내추럴 모드. · 깃이 좁고 짧음. · 3버튼룩의 일반화. · 4~5버튼룩 등장. · 여성스러운 느낌의 부드럽고 화려한 캐주얼풍. · 캐릭터 정장-어깨선과 허리선을 살려 몸맵시 강조.	
1996	· 좁은 어깨, 꼭 맞고 잘록해진 허리선으로 날씬하고 가는 실루엣. · 허리밑 주름을 없앤 일자형의 좁은통 바지. · 신체에 달라붙어 곡선미를 그대로 드러내는 실루엣. · V존이 좁아지고 라펠의 여밈 부분이 위로 올라가 간결하고 여성적인 인상의 부드러운 실루엣. · 영국풍, 비틀즈 스타일-60년대, 3~4버튼룩. · 워갈라셔츠-단추가 목끝까지 달려 있지 않고 V자로 목이 드러나는 스타일-50~60년대.	
1997	· 좁은 어깨에 잘록한 허리를 강조, 여성적인 섬세한 실루엣-상반기. · 넉넉한 품, 넓은 어깨 강조-하반기. · 좁은 V존의 싱글브레스트, 1~2버튼룩. · 반팔신사복.	

<표 3> 신문에 나타난 남성복 색상·무늬·소재의 연도별 변화

	색상, 무늬, 소재	요인
19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리브색, 와인색을 복합적으로 사용. · 벨벳, 벨로어, · 수입원단. 	<p>환경문제에 대한 의식 고취, 경제 성장, 스포츠의 성장, 건강의식 증대.</p>
19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스런 중간톤. · 블루, 와인, 그레이, 그린, 올리브, 카키, 황동, 오렌지, 브라운. · 스트라이프, 기하학적 무늬, 꽃무늬, 페이즐리, 문장무늬, 명화, 과일, 얼굴, 풍경. · 고급화, · 가벼운 직물, · 울, 캐시미어, 모헤어. 	
19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스텔조. · 청색, 그린, 올리브, 연록, 오렌지, 베이지, 회갈색. · 잔잔한 반복무늬, 페이즐리, 꽃무늬, 줄무늬, 체크무늬, 기하학적 무늬, 영국식 문장무늬, 물방울무늬. · 부드럽고 가벼우며 탄력성이 있는 제품. · 울, 툴울, 실크, 린넨, 비스코스. 	
19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스텔조의 밝은 색조, · 전통색상인 블랙, 그레이, 블루로 회귀. · 인디언핑크, 오렌지, 베이지, 카키, 화이트, 블루, 스카이블루, 그린, 옐로우, 그레이. · 스트라이프, 바둑판무늬. ·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경량 소재, · 천연섬유, · 신소재. · 툴울, 울, 실크, 사이로필. 	
19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뜻한 색, · 밝은 색, · 파스텔톤. · 그린, 바이올렛, 핑크, 카키, 베이지, 레드, 연두, 블루, 브라운. · 작은무늬, 기하학무늬, 그래픽무늬, 나뭇잎무늬, 물방울무늬, 추상무늬, 연속무늬, 체크무늬, 줄무늬, 꽃무늬, 새무늬. · 자연스럽게 주름이 잡히며 부드러움이 표현되는 제품. · 레이온, 폴리에스터, 실크, 방모. 	
19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밝은 색조. · 베이지, 와인, 후추색, 옐로우, 그린, 브라운, 블루, 핑크, 화이트, 아이보리, 스카이블루, 오렌지. · 변형체크, 하운드투스, 가는 줄무늬, 흡스핀, 새눈무늬, 꽃무늬, 페이즐리. · 천연섬유, · 울, 마, 실크, 린넨. 	
19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스텔조, · 화사한 색상. · 그레이, 브라운, 카키, 그린, 베이지, 아이보리, 옐로우, 핑크, 화이트, 블루, 바이올렛. · 체크무늬, 굵고 강한 가로선무늬, 물고기 뼈를 연상시키는 무늬. · 자연소재, · 하늘거리는 소재, · 울, 툴울, 린넨, 마. 	
19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스텔톤, · 고운빛깔, · 블루, 연두, 오렌지, 블랙, 옐로우. · 꽃무늬, 핀스트라이프무늬. · 스판소재. 	
19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스텔톤. · 아이보리, 핑크, 그레이, 블랙, 오렌지, 브라운, 와인, 스카이블루, 그린, 화이트, 블루. · 체크, 스트라이프. · 광택소재, · 꾸깃꾸깃하게 가공한 소재, · 실크, 벨벳, 캐시미어, 코듀로이. 	

보면 중년의 남성들도 나이보다 젊게 보이고 싶은 욕구로 흰색이나 하늘색의 제품들이 인기라고 적고 있어 화려한 색상의 복식들이 더 이상 젊은 이들의 전용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무늬도 색상과 비슷한 경향을 보여 <표 3>을 보면 잔잔한 반복 무늬, 페이즐리(올챙이)무늬, 에콜로지(생태계 무늬), 에스닉(원시풍)무늬, 화려하고 추상적인 비잔틴 무늬, 변형된 스트라이프, 섬세한 바둑판 무늬, 가는 사선의 줄 무늬, 꽃 무늬, 동물 무늬, 기하학적 추상적인 무늬, 체크 무늬, 새려된 곡선을 활용한 무늬, 등의 자연지향적인 것을 선호하며 유성욱·권혜옥²⁹⁾의 연구에서는 체크 무늬가 강세라고 하였고 꽃 무늬 같은 무늬는 김세영³⁰⁾의 연구에서도 남성복의 여성화의 경향으로 보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의 경제적 성장은 복식의 소재에 크게 영향을 끼쳤다. 고급·다양화 되어 복식이 유행에 뒤떨어져 못입지 해지거나 찢어져서 못입는 것은 아니게 되었다. 첨단과학의 발달은 신소재 개발에 박차를 가해 피복재료에 획기적인 면들을 보여주고 있으며 오히려 소재가 너무 다양화되어 놀라움을 주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부드럽고 가벼우며 탄력성이 있는 질감을 보다 잘 나타낼 수 있는 소재들이 속속 개발될 것이다.

남성복에서 전통적으로 모직이 소재였으나 경제적 성장으로 생활의 여유와 풍요로움이 소비생활에 고급화현상을 대두시켜 <표 3>에서 보여지듯이 코튼, 린넨, 실크 등의 천연소재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는 인간의 자연으로의 회귀 본능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요즘은 부드럽고 가벼운 소재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남성복의 여성화의 경향으로 볼 수 있으며 <표 3>에서 보면 1995년의 하늘거리는 소재, 1996년의 스판소재, 1997년의 광택소재, 꾸깃꾸깃하게 가공한 소재의 사용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상과 같이 소재는 고급화, 다양화 된 추세로 천연소재의 사용이 두드러지며 패션 경향과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남성복의 여성화 경향이 라던지 자연주의 무드가 소재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3. 착장방식

착장방식이란 복식의 형태와 착용자의 분위기를 조화시켜 보여주고 그의 사고와 개성뿐 아니라 독특한 제스처까지도 반영한다. 그러므로 착장방식을 살펴보면 그 사회의 변동에 따라 복식의 변화됨을 알 수 있다. <표 4>를 보면 자신의 외모에 신경을 쏟는 멋쟁이 남성들이 늘어나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조화를 맞출 수 있는 토탈 패션화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남성토타패션이 늘어나는 것은 과거에 비해 외모에 신경을 쓰는 남성들이 많아졌고 멋과 개성을 추구하는 의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멋내는 것도 당연하다는 흐름으로 사회가치가 바뀌고 있는데 있으며 특히 30, 40대의 경제적으로 자립한 남성들이나 개성을 추구하는 자유직업인, 전문직의 남성들 사이에서 이 같은 경향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1992년의 빅스풍, 1993년의 레이어드룩, 1994년의 노타이, 힙합룩, 레게룩 등 개인주의적 사고와 생활방식의 심화가 보다 개성적인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한 소비자의 욕구로 표현돼 공식을 뒤집는 듯한 거리 패션이 연출되고 있으며 또 다른 모습으로는 남성들이 여성복에서의 코디네이션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속박에서 벗어난다는 정통 슈트의 붕괴는 여러 형태를 부각시켜 세퍼레이츠(콤비)와 소프트 자켓(비구조적·연컨스트럭티드 자켓)이 그것이다. 또한 교복자율화 이후 컬러 TV를 보고 자라난 컴퓨터 세대들이 사회인이 되면서 몰고 온 코디네이션 바람이 젊은이들뿐 아니라 기성세대들의 복식 취향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정장과 캐주얼 웨어의 경계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정장이 캐주얼화하고 있다.

의식수준의 향상으로 자신의 외모에 신경을 쓰는 남성들이 늘어나고 '30년대 미국 부유층의 호화로운 패션을 본뜬 복고풍의 개츠비 패션이 최근 들어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 고급스러운 액세서리 치장이 인기를 끌고 있어 한국 남성들 사이에서도 액세서리 사용이

29) 유성욱, 권혜옥, "한국 현대 남성복 변천에 관한 연구," 인문과학 성균관대학교 26호, 1996.

30) 김세영, "현대 남성복의 조형적 특성에 나타난 양성화 경향,"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표 4> 착장방식

	착 장 방 식	요 인
1988	· 토탈패션화. · 외국브랜드 도입 증가, · 자유롭고 간소화된 복장.	자기 표현의 시대, 외모에 대한 관심 증가, 사회적 가치관 변화.
1989	· 토탈패션화.	
1990	-	
1991	-	
1992	· 콤비(세퍼레이트)차림, · 믹스풍-자유로운 복장. · 헤어스타일의 개성화, 패션화.	
1993	· 소프트 자켓-내추럴룩, · 레이어드룩, · 콤비차림 확산. · 조끼착용, · 반바지 차림의 일상화. · 여성복의 코디네이션 응용.	
1994	· 콤비슈트, · 니트웨어 증가, · 토탈패션화, · 조끼활용. · 자유롭고 개성적인 복장, · 개성 있는 헤어스타일. · 노타이, · 힙합룩, 레깅룩.	
1995	· 겹쳐입기, 레이어드룩, · 스리피스차림, · 콤비의 일반화. · 셔츠(폴로셔츠)애용, · 오픈 와이셔츠, · 조끼유행.	
1996	· 소프트 슈트, · 조끼 착용, · 워말라셔츠.	
1997	· 콤비차림.	

부쩍 늘고 있다.

이처럼 남성들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패션에 신경을 쓰며 자신을 꾸미기 시작하여 토탈패션화 되었고 개성과 미를 추구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가꾸어 나가고 있다.

IV. 결 론

본 논문은 1988년부터 1997년까지의 한국 남성복의 변화 과정과 그 요인을 동아일보, 조선일보, 남성의 멋 등 3종류의 신문매체에 나타난 남성복 관련 기사의 분석을 통해 내용분석법으로 알아보았다.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한국 사회는 사회·문화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으며 이에 따라 복식도 함께 변화하였는 바 한국 남성복의 변화를 분석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한국의 남성복은 과거의 남성복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짧은 시기에 다

양한 변화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서울 올림픽에 의한 한국 사회의 정치·경제·문화의 변화에 따른 사회구조 및 사회구성원의 가치관의 변화로부터 초래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서울 올림픽의 경제적인 성장과 민주화, 개방화로 남성들의 의식은 많이 변화되어 자신의 개성을 패션으로 표출하고 있으며 이들의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는 이러한 패션의 남녀평등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제화되기 시작한 한국사회는 외국 브랜드들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남성복의 패션화, 고급화, 세분화를 더욱 부추겼다. 해외여행의 자유화와 대규모 국제 패션쇼의 개최 등에 의한 국제 교류의 빈번함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세계 곳곳의 현상과 복식을 직접 보고 느끼게 되었으며 서구모드의 수용속도를 가속화시켰다. 그리고 생활 수준의 향상은 건강 문제에 관심을 집중시켜 스포츠를 발전시켰다. 이에 캐주얼풍의 복식이 널리 유행하여 생활 속으로 깊이 파고들어 왔다. 즉, 스포츠

나 레저만을 위했던 복식들이 이제는 일상생활에서도 널리 응용되어 남성들은 보다 많은 레저 시간을 가지고 있으며 고용기회의 확대로 재택 근무나 자유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근무복과 레저를 위한 복식의 구분이 매우 모호해졌다.

또한 스타일은 여성복 패션 경향과 함께 변화하여 '90년대 초반에는 어깨선을 좁히고 허리선을 강조하는 스타일이었고 '90년대 중반에는 '50~60년대의 복고풍의 유행으로 몸에 꼭 맞는 날씬하고 가는 여성적인 실루엣이 유행하였다. 그러나 '90년대 후반에는 다시 넉넉한 실루엣의 남성적인 스타일이 점차 나타났다. 사용된 소재도 얇고 부드러우며 비쳐 보이는 광택 있는 소재들이 이용되었고 남성들의 외모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착장방식은 멋과 개성을 추구하였다. 특히 남성들의 액세서리의 다양화와 함께 그 착용이 증가하였고 여성복에 응용되던 코디네이션 방식이 남성복에도 사용되었다.

즉, 남성복은 여성복의 패션 경향을 따라가고 있는데 이는 획일적인 남성복에서 새로움을 찾는 남성들의 욕구가 여성복에 초점을 맞추게 된 것으로 이 같은 새로움에 대한 욕구는 경제가 발전하여 소득이 향상되고 사회가 발전할수록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복식의 변화가 사회·문화의 변화와 깊은 관계에 있으며 따라서 복식이 그 당시의 전반적인 현상을 단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는 하나의 작은 문화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 권혜옥, 변유선, “우리나라남성복 광고의 변화와 남성복정장 재킷의 디자인요소 변화에 관한 연구”, 「복식」 32호. 1997.
- 김세영, “현대남성복의 조형적 특성에 나타난 양성화 경향”,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 「남성의 멋」, 서울: 북장신문사, 1988년-1997년.
- 「동아일보」, 서울: 동아일보사, 1988년-1997년.
- 유송옥, 권혜옥, “한국현대 남성복변천에 관한 연구”, 「인문과학」(성균관대학교) 26호. 1996.
- 은영자, 최운해, 형승희, “매일신문에 나타난 복식현상에 관한 연구”, 「복식」 37호. 1998.
- 이호정, 『의류상품학개론』, 서울: 교학연구사, 1995.
- 임태성, “서울 올림픽이 한국의 사회변동에 미친 영향”,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 정진경, “한국성역할검사”, 「한국심리학회지」 5호. 1990.
- 「조선일보」, 서울: 조선일보사, 1988년-1997년.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7.
- 통계청, 「한국의 주요 경제지표」, 1998.
- Anthony Giddens, *Sociology*. London: Polity press, 1993. 김미숙의 (역). 「현대사회학」. 서울: 을유문화사, 1996.
- Hurlock, E. B., *Development Psychology*, New York: Mcgraw Hill Book Company Inc, 1975.
- Lauer, R. H., *Perspectives on Social Change*. Allyn and Bacon, Inc, 1977.
- 정근식, 김해식 (역), 「사회변동의 이론과 전망」. 서울: 한울, 1997.
- Marilyn J. Horn & Lois M. Gurel, *The Second Skin*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1981). 이화연 외 (역), 「제2의 피부」. 서울: 까치, 1995.

권혜옥, 변유선, “우리나라남성복 광고의 변화와 남성복정장 재킷의 디자인요소 변화에 관한